

코로나 충격과 목회신학

최종인 목사(평화교회 담임)

시작하는 말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혀 상상치 못한 놀라운 충격을 경험했다. 코로나 팬데믹은 예전의 IMF 충격이나 외환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움을 교회에 안겼다. 예전의 금융위기 때에도 교회는 생존했고, 많은 사역이 약간 축소되었지만 신속하게 회복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은 과거 어떤 충격보다 심각한 도전을 교회에 주었고 아마도 충격의 여파는 지속된 전망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교회의 예전과 설교, 행정, 교육에 충격을 안겼다. 코로나19는 온통 온라인 세상을 만들었다. 실제로 많은 수의 교회가 교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으로 눈을 돌렸고 이는 디지털 교회에 더 빠르고 불가피한 부상을 가져왔다. 교회는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성례전, 온라인 설교, 온라인 헌금 및 디지털 선교에 적응해야 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코로나 팬데믹 못지않은 대규모 충격들이 밀려올 것이라는 점이 우려가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한 핵문제도 예측할 수 없다. 대만과 중국의 전쟁 위기도 안개 속에 있다. 우리나라의 정국도 평안한 때가 아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교회는 문제를 헤쳐 나갈 비법이나 전략을 찾기보다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목회신학'에 주목해야 한다.

1. 신학의 4 기둥

목회신학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신학적 분류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는 네 가지 주요 기둥이 있다. 대부분 목회자들이 신학을 공부할 때 모두 거쳐 가는 커리큘럼에 들어있으며, 상위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그 중 하나에 집중하도록 선택하게 된다. 기독교 신학의 네 가지 기둥은 각각 신앙과 종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신학의 네 가지 기둥은 무엇인가?

성서신학

신학의 이 기둥은 성서 본문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해석이다. 기독교 신학에서 이것은 주로 성경을 언급하지만 성경에 대한 주석을 제공하는 다른 텍스트로 확장될 수도 있다. 본래 기독교 신학은 구약과 신약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성경 연구를 통해 우리는 성경 구절을 읽고 그 의미를 분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런 과정을 주석이라고 한다. 주석, 또는 주해를 통해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본문과 깊이 연결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회자들은 성경을 갖고 목양을 하게 되므로 더욱 성서신학에 집중해야 한다.

역사신학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기독교 신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기독교와 전 세계의 역사는 연결되어 있다. 인류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적 사건에 의해

상호 작용하고 형성되었으며 영향을 받았다. 기독교는 인간 문명의 역사에서 많은 부분을 형성했다. 역사신학은 바로 그 영향과 기독교가 변화하는 세계에 어떻게 적응했는지 살펴보는 연구이다.

조직신학

이것은 기독교 신학의 교리로부터 일관된 체계를 공식화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래 기독교 신학은 기독교 신학을 구성하는 핵심 신념 집합인 교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조직신학은 우리의 믿음을 일관된 체계로 조직화할 수 있게 해준다. 결과적으로 조직신학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역사를 통틀어 기독교인들은 가르침(신조)의 공식화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자료(교리 문답)를 만들어 왔다. 조직신학은 고대 자료를 탐색하며, 그런 다음 현대 생활과 연구에 적용하는 신학의 기둥이다.

실천신학

기독교 신학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문화와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성경이나 교리를 선교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등의 주제를 연구한다. 여러 면에서 실천신학은 다양한 신학적 사고가 모이는 장소이다. 대학 연구, 종교 지도자, 종교 단체, 신학자 및 신학교는 모두 이 분야의 학습에 기여한다.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천신학은 신앙과 문화의 교차점을 알게 하고, 신학의 영향을 받아 교회를 인도하며,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게 만드는 신학의 중요한 기둥이다.

2. 목회신학의 3 영역

목회신학은 기독교 목사가 복음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이 주로 하나님의 일과 그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학이며, 목회자의 직분과 관련하여 신성한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목회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목회자의 임무는 목회서신에서 볼 수 있다. 딤후 4:12-16, 딤후. 2:22-25, 디도서 2장이다. 목사는 말씀을 전파하고 낭독과 권면과 교리에 힘쓰고 자기를 삼가고 자기가 감독으로 삼은 양 떼를 돌보아야 한다. 그의 직분에 대한 고찰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이해, 같은 직분에 있는 다른 일꾼들의 축적된 경험, 그의 교단의 관습, 시대의 상황과 관련하여 주목하게 된다. 목회자는 자신의 직분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유능한 목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자격 중 하나이다.

목회자는 그 시대의 치열한 경쟁과 활동 속에서 일하는 방법과 빠른 인간 생활의 흐름을 따라가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목회자의 직분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복음적인 목회자를 더욱 온전한 일꾼으로 만드는 모든 실천적 성격은 목회신학 체계에서 그 자리를 찾아야 한다. 목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정확할 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해야 한다. 목사들 가운데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지식 습득을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간주해야 한다. 목사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양 떼를 감독하거나 인도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목회신학은 목회자의 삶과 목회활동을 그 전체 목표로 한다.

목회신학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세 가지 영역이다. 첫째는 목회자의 리더십, 둘째는 목회적 돌봄 그리고 셋째는 공적 사역이다. 이러한 목회신학적 본질은 기독교 봉사를 위한 영역뿐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한 필수 사역이 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다른 신학 기동보다 목회신학적 기동이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세 가지 영역을 더욱 주목해야 한다.

리더십

진정한 리더십의 표시는 누군가가 당신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리더십의 자질이 있다.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리더로 세우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리더로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으시다. 기독교 리더십의 출발점은 그 주제에 대한 성경적 신학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는 다양한 이론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탐구해야 한다. 누군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리더십 모델, 즉 선지자, 제사장, 왕, 고통 받는 종, 사도, 목사, 장로 또는 단순히 예수 자신을 주요 모델로 옹호하기도 한다.

목회적 돌봄

목회사역은 '목사'와 적절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서 발생한다. 그러나 성서적으로 볼 때 목회적 관계는 단순히 친구와 후원자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돌봄을 받는 양과 목자와의 관계이다. 목회자의 일반적인 역할 외에도 생각이 필요한 특별한 돌봄 영역이 있다. 유아로부터 노년기, 또는 임종기까지 교회생활에서 연령별, 사회집단별 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목회자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 새로운 개종자를 제자로 삼는 것, 세례나 결혼 준비와 같은 문제들을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건강 문제가 있거나 삶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과 같은 것들이 돌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목회신학은 교인들의 삶에서 예외적인 것과 정상적인 것을 탐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

공적 사역

목회신학의 한 영역으로는 목회자의 공적 사역을 들 수 있다. 사도행전과 목회서신 그리고 성경에는 목회자의 역할을 다양하게 소개한다. 공적 사역을 위한 목회자의 역할을 살펴본다.

첫째로 목회자는 자신을 삼가고 자신을 지켜야 한다(행 20:28, 딤후 4:1-16).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교리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거짓 가르침과 소문을 거부하면서 자신을 경건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온 세상이 그에게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영향과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계속 강해지며 사역에서 계속해서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로 목회자는 양 떼를 경계해야 한다(행 20:29-30, 딤후 3:1-8). 다양한 방법으로 회중으로 들어온 온갖 종류의 이단과 거짓 교리를 발견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종종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신학적 개념과 관행을 조장하는 대중적인 기독교 연사나 저자의 가르침을 가져오는

선언의 기독교인의 형태로 온다. 다른 때에는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사람들이 철저히 검증되거나 훈련되지 않은 권위나 가르침의 자리에 놓이게 되기도 한다. 머지않아 거짓 교사들의 행동과 가르침은 양 떼에 피해를 입히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분열시키기까지 합니 다.

셋째로 목회자는 교회를 올바르게 감독하기 위해 감독하는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행 20:28). 너무 자주, 목회자들은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신에 무엇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따라 인도하고 결정을 내리기 쉽다. 잠언 18:13, 15, 17, 19에서는 성급한 결정이 종종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됨을 알려주고 있다. 그 대신 목회자들은 문제의 진실을 찾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응답을 구해야 한다. 이것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목사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넷째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먹여야 한다(신명기 8:1-3, 행 2:42, 행 20:28, 엡 4:11-14, 벧전 5:1-4). 목회자는 양 떼가 교리의 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믿음과 지식이 자라는 데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메시지에는 양떼가 그들의 삶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 성경적 조언을 할 때, 그 조언은 확실한 성경적 원칙에 기초하여 결과가 성경적이어야 할 것이다. 양 떼가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자도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목회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행 20:28; 고린도전서 6:19-20; 고린도전서 7:23; 엡 1:12-24; 벧후 2:1). 너무 자주, 목회자들은 자신이 교회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고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식하지 못하는 행동과 결정으로 이어진다. 목사는 그가 그들을 위해 한 일 때문에 회중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도록 격려해야 한다(요일 4:19). 목사는 그가 이것을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지며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그의 지도력을 따를 수 있게 할 것이다(히브리서 13:17).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했듯이 목회자는 사도행전 20:31-36에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양 떼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찾아야 한다. 사도행전 20:36-38의 바울처럼 목사가 성경의 이러한 원칙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양떼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할 것이다. 목회는 깊은 겸손을 요구하고 많은 눈물을 낳고 유혹을 받는 일 년 내내 봉사하는 일이다.

3. 포스트코로나 시대 양상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온갖 박해나 고난 가운데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발전해 온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발견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은 지금까지의 기독교가 대응한 것 이상으로 많은 변화와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독교 신앙은 2,000년 동안 전염병에 대처해 왔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부상은 현대 교회와 신학을 놀라게 했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향후 10년 동안 우리가 직면하게 될 많은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이미 직면한

문제의 더 극단적인 버전일 것이다.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회신학적 대처가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세상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세상을 주도할 전망이다.

우선 신학적 갈등이다.

영국 지식인 생활에 영향력 있는 인물인 랍비 조나단 섹스(Rabbi Jonathan Sacks)는 COVID-19 재앙을 “무신론자들을 위한 계시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목회자들 가운데도 코로나19를 하나님의 계시로 설교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설명하기에는 코로나의 영향은 단순하지 않다. 보수와 진보 교단의 신학적 견해 차이는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가 통제하면서 더욱 견해 차이가 심해졌다. 공공질병통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종파, 근본주의, 보수교회만이 집단감염 사례에 연루되어 있지만 한국 개신교의 경우에는 공공통제에 대한 적대감에서 온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신앙이 강할수록 자유주의 종파 밖의 기독교는 헌법상의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에 더 밀접하게 고정되었다. 물론 일반적으로 조직관리 깊숙이 관여하는 목회자들은 교단에 상관없이 평신도에 비해 공공방역조치에 대해 더 강한 적대감을 보였다. 코로나19를 직면해서는 교회들마다 공통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적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감추어졌지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두드러질 전망이다.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환경문제나 소수 성애자 대처에 있어서도 갈등은 발생할 것이다.

경제적 변화이다.

코로나19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예전의 세계로 돌아가기 어렵다. 세계 경제에서 이미 진행 중인 많은 추세가 팬데믹의 영향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원격 근무 및 학습, 원격 의료, 배달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행동의 부상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 특히 그렇다. 공급망의 지역화 및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의 추가 폭발을 포함하여 다른 구조적 변화도 가속화될 수 있다. 직업의 미래는 소득 양극화, 근로자 취약성, 더 많은 공연 작업, 근로자가 직업 전환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과 같은 많은 문제와 함께 잠재적으로 배가되는 문제와 함께 더 빨리 도래했다. 이러한 가속화는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새로운 고려 사항의 결과이며 경제와 노동 시장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교회에도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불균등의 문제이다.

코로나19의 첫 번째 물결 이후의 세상은 더 포용적이고 탄력적이며 지속 가능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기업의 최하위 경쟁과 대다수의 전 세계 노동력 사이의 근로 빈곤으로 인해 국가 간 불평등이 심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 너무 많은 국가가 보편적인 사회 보호, 강력한 공중 보건 시스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 계획 또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지속 가능한 실물 경제 없이 COVID-19의 외부 충격을 겪었다. 이제부터는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이기에 서민들의 경제는 더욱 고통을 받을 것이다.

지정학적 변동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의 다음 세계 질서를 형성할 세 가지 주요 지정학적 추세를 가속화했다. 이는 이 대유행의 반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첫 번째 추세는 탈세계화이다. 현재

의 위기로 인해 나타난 물류상의 어려움은 이미 글로벌 공급 망으로부터의 전환을 가리키고 있다. 둘째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 되면서 불가피한 민족주의와 "나의 민족 우선" 정치의 성장은 기업으로 하여금 국가 및 지역 공급망에 유리한 사업 운영을 현지화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세 번째 추세인 중국의 지정학적 부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했었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적, 기술적 초강대국으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했지만 누구도 중국이 "소프트파워"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중국은 계속해서 소프트파워의 세력을 키워 글로벌 강자로 나서게 될 것이다. 러시아와 더불어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기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4. 포스트코로나 시대 GPEC

여기서 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목회자가 주력할 부분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것은 또한 코로나를 벗어나고 위기에서 탈출하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본다. 미래를 대처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GPEC를 강조한다. 즉 Gospel, Prayer, Evangelism, 그리고 Caregiver이다.

More Gospel!

전염병뿐 아니라 미래에 어떤 상황이라도 교회를 압도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한 가지 방법은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은 '보다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교회는 복음 때문에 시작되었고, 여전히 제자를 삼으라는 부르심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의 사명은 그대로 감당해야 한다.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강조할 일이다. 어떤 상황의 변화가 교회 앞에 나타나 돕거나 방해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교회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강단에서부터 복음을 재 강조되어야 한다. 삶에서 복음적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 특별히 성결의 복음을 강조하는 우리교단은 더욱 복음적 교단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일시적으로 락다운이 시작됐을 때 그나마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대체로 그것을 가장 잘 견뎌낸 사람들인 것 같다. 앞으로 교회는 회원과 참석자 간의 유기적(단순한 구조적 관계가 아니라) 및 실제 관계를 육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유기적 관계로 묶어주는 것은 사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죽은 가지를 제거하고 건강한 가지를 가지치기하는 정원사의 작업(요 15:1-2)도구는 가위가 아니라 복음이다.

More Prayer!

시대적으로 매우 불안하다. 어디에서든지 안정감을 찾을 수 없다. 소규모 펠로십으로 모였던 교회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살아남기 힘들다. 교단의 허리 역할을 감당하던 중형교회는 더욱 위축되고 줄어들 것이다. 큰 교회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무리하게 세습한 교회는 지역에서 외면을 당하고, 건축 빛이 남아있는 교회들은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그래서 불안한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모닝콜을 울려야 한다. 다시 새벽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다. 금요철야를 불 붙여야 한다. 교회당에 나오는 출석률과 동일하게 온라인 시청도 큰 폭이 줄어들었다. 우리는 교회 유튜브 방문자 수가 매주 천천히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교회에 더 느슨하게 연결된 사람들은 '조용한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예전에 봉사하던 많은 일꾼들이

가시적으로나 내부에서도 참여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교회의 역사나 전통은 점점 더 달아 없어졌다고 느껴지는 시대이다. 이럴 때는 다른 수단과 방법은 필요 없다. 먼저 기도의 모닝콜을 울리고 전교회가 기도사역에 주력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돌파구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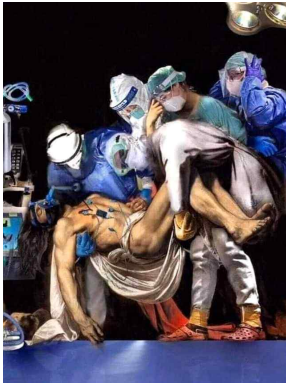
More Evangelism!

앞으로는 '더욱 전도'에 주력해야 한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 교회 지도자는 자신의 교회 수입은 증가했지만 참석자 수는 감소했다는 역설에 대해 말했다. 다시 말해서, 헌신적인 핵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흐릿하게 하는 동안에도 한발 더 나아갔다는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규모 모임을 줄어든 것이다. 이제는 작은 것이 새로운 큰 것으로 부각된다. 미래는 교회 사역의 재조정을 강요하고 있다. 미래 교회는 연결, 훈련 및 제자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그룹 및 1:1 사역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회의 규모나 크나 작으나 전도에 힘을 써야 한다. 전도를 위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미래의 리더십에 투자하고, 지역 사회와 다시 연결해야 할 것이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전도사역이 필요하다.

More Caregiver!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보다 돌봄사역'이 절대 필요하다. 아무도 온라인 교회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교회는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이 기술이 허용하는 새로운 전도 기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온라인 옵션을 통해 유지할 것이다. 온라인사역이 지속될 경우 상황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이다. 예전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제는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2025년이면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8년에는 세종시를 제외한 국내 모든 지역이 초고령사회가 된다는 통계 당국의 전망이 나왔다. 2030년이 되면 한국은 새로운 형태의 라벨이 붙게 된다. 그것은 '간병사회'가 될 것이다. 미래를 선도하는 리더처치는 초고령사회를 기회로 교회와 기독교인이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고 있다. 사람들은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 복지 활동이나 자원 봉사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지역 기관과 정치인은 지역 사회를 위한 교회의 노력과 기도를 높이 평가하게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옵션이나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자세는 아니다. 네 가지 옵션, GPEC으로 교단 교회들이 일어나고 새 시대에 맞추어 대처하기를 바란다.

나가는 말



위의 이미지는 폴란드 예수회 철학자이자 예술가인 Vyacheslav Okun이 그렸다. 2020년 성 금요일이라고 한다. 그림의 중심은 사망한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으로 묘사된 예수이다. 주변의 인물들은 의료 전문가, 헌신과 목적으로 응답하고 보살핌과 지원의 진정한 얼굴을 보여주는 성령을 생각할 수 있다. 아버지는 그는 어디에 계시는가? 아마도 대기실에서, 아들을 대면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알지 못함과 허락받지 못함과 마주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세 가지 삼위일체적 묘사는 바이러스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어느 정도 다루고 있다.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다. 현실을 구하고, 유지하거나 회복시켜 보려고 열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기다림과 무력함으로 무엇을 바라야 할지 모르고 모든 것에 압도된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또한 소득, 주택, 연령, 인종, 장애, 정신 건강 및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정체성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영혼'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핵심 근로자로서 돌봄, 배달 또는 소매와 같은 저임금 직업에서 바이러스 대응의 최전선에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종종 고립되어 가시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가적 노력에 물질적 기여를 하지 못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무력해지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첫 번째 신학적 단계는 하나님이 모든 삶의 조건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 안에 계시며 봉쇄 기간의 도전과 박탈이 신실한 자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육신한 임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도 강조 표시된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종종 교회의 이미지로 인용되며 전염병 시즌에 특히 사회 전체의 이미지로 도움이 된다. 코로나로 희생된 사람들, 건강이 악화된 사람들, 격리 또는 투옥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 이미지이다.

세 번째 신학적 단계는 교회가 초기부터 건강과 교육에 관여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관행에서 성령이 가져온 변화가 가장 빈번하게 구현되고 가장 습관적인 유추를 찾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5:31-46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한 말씀은 교회가 굶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나그네와 병든 자, 갇힌 자들과 함께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가르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봉사 활동은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역에서 일터에서 많은 희생을 하면서 극

복을 도왔다. 이 세 가지 통찰력은 특히 가장 취약한 교회와 사회와 관련된 전염병에 대한 신학적 대응을 분명히 한다. 이것은 단지 교회와 사회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로 이해되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위기의 모든 차원에 밀접하게 참여하고 관여하신다. 사회와 관련하여 이것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보살핌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진정한 확신이 있다는 것을 재발견하는 순간이다. 교회와 관련하여 이것은 성육신 증거를 재발견하는 순간이다.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라는 소명을 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철수시키려 하지 않고 실천적인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완수한다. 고립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교회는 이방인에게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실제적인 몸짓이다. 교회는 바로 그런 목회신학의 시각으로 세상을 마주해야 한다.

* 참고문헌

- Bevans, Stephen, Sedmak, Clemens.(2021). *Does God Love the Coronavirus?: Friendship, Theology, and Hope in a Post-Covid World*. Wipf & Stock Publishers.
- Campbell, Heidi A.(2020). *Religion in Quarantine: The Future of Religion in a Post-Pandemic World*. from e-book.
- Huth, Kerrin, Huth, Neil.(2020). "The post-Covid church will see with its eyes opened". *Lutheran Theological Journal*. 1. August.
- Jerry, Pillay, (2020). "COVID-19 Shows the Need to Make Church More Flexible". *Sage Journals*. Vol. 37, Issue 4, October.
- Kim, Minah.(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ociety in the COVID-19 Era: The Case of Protestantism in South Korea". *Religions*, 12:1102.
- Lefebvre, Solange. (2022). "What the COVID-19 Pandemic Has Revealed about Religions". *Religions*. 13(6), 550
- Verster, Pieter.(2021). "Rebuilding the community and the church post-COVID-19". *Pharos Journal of Theology*. ISSN 2414-3324 online Volume 102.